

순수한 사랑, 그 자유.  
그 외에는 다 빈 자.

# 빈 채로

KIM CHUL

빈 채로

# 목차

---

|    |          |    |
|----|----------|----|
| 01 | 빈        | 4  |
| 02 | 채        | 9  |
| 03 | 빈 채로     | 14 |
| 04 | 전복    顛覆 | 18 |
| 05 | 도중    途中 | 23 |
| 06 | 와중    渦中 | 27 |
| 07 | 기색    氣色 | 32 |

|    |         |     |    |
|----|---------|-----|----|
| 08 | 무순      | 無順  | 36 |
| 09 | 숨다      |     | 40 |
| 10 | 말       |     | 45 |
| 11 | 석상      | 石像  | 49 |
| 12 | 수내면     | 水內面 | 55 |
| 13 | 영공      | 零空  | 60 |
| 14 | 불꽃      |     | 67 |
| 15 | Vincerò |     | 71 |

## 빈

살면서 빈 실재The empty real를 경험한 적이 없다. ‘비어 있다’라고 하는 곳조차 있는 것은 있었고 다만 그것이라 하는 무언가만 없었다. 어떤 것도 부재하는 무無 즉 진짜 빈 무엇인가는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다.

버려진 빈집도 사는 사람이 없고 이전 같지 않은 것이지 있는 것들이 있다. 사막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와 쓸려 다니는 덩굴들이 있다. 무인도에는 딱 봐도 그 섬이 있다.

비었다고 절대 무無나 완벽한 공공간이 아니다. 없는 그 무엇, 바로 그 대상이 없을 뿐 완전히 빈 상태는 없다. ‘빈 상태’. 개념이다. 특징하는 무엇만이 지정한 구역 내에 없다는 언어상의 표현이다.

빈 지구는 실제로 없다. 온갖 물체, 생명체들이 자리 잡고 있다. 빈 우주도 실재하지 않는다. 행성들이 자리하고 있다. 상상으로도 잘 그려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없는 ‘빈’.

텅텅 빈 곳, 탕탕蕩蕩 빈 존재, 텅텅 빈 삶.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영어 단어 Empty의 고대 용례를 살펴보면 ‘한가로움, 여가’의 의미이었다. 이후로 측정할 만한 분량이 없고, 속에 내용물이 없고, 실속 없이 공허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발전해 왔다. Void도 마찬가지로이다. 요는 ‘빈’은 free이다.

이러한 개념과 표현으로서의 ‘빈’은 인간 삶의 운영과 생활 방식으로써 필요하다. 삶보다 죽음의 상태와 흡사한 ‘빈’은 빈 구석 하나 없이 채우기 위해 소유하고, 충전하고, 축적하며 살다가 가는 인생들에게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태 형용사’이다.

빈 나 없는 나는 생지옥이다. 평생 나 자신에게 그토록 집중하는 데 온 에너지를 소진하고 결국 기진한 채 거칠거칠 저급해진 자유 새끼줄에 묶인 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채우기만 할 때 자유는 수갑과 족쇄가 될 수 있다.

빈 상태는 죽음 쪽이다. 생의 에너지 그 자체가 자유롭게 역동할 뿐. 소망도 기대도 바람도 대상도 필요 없는 상태이다. 생의 에너지는 순수한 사랑, 그 자유이다.

순수한 사랑은 낭만적 표현이 아니다. 소각하여 소멸시키는 불이다. 불을 더 일으키는 풀무이다. 불길 한가운데에 있는 존재는 절대 불붙지 않는다. 정금처럼. 이런 에너지가 자유롭게 역동한다. 이것 말고는 죽음과 같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자기 몸과 마음, 자아와 삶을 빈사瀕死의 빈 상태로 죽도록 시도한 적이 없는 이들의 끝은 참혹하다.

사망의 펀치 한 방에 존재 일체一切가 털린다. 그 생생한 경험. 그러한 종말의 체험. 꼭 채우느라 살았던 몸뚱이가 죽음이라는 완전 진공 상태로 진입하는 일기일회의 날숨으로 폐는 터진다. 생명 종결expired.

몸은 부풀어 오르고 수분은 끓어오르고 피부는 기포가 올라와 검푸르러진다. 이제 무인물無人物이다. 그러나 그때도 빈 것이 아니다. 딱 보아도 그 물체는 있다.

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임은 그의 출생의 이유요 생애의 목적이었다. 그는 다른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심령의 소유자였다.

전지전능-신-아버지의 뜻에 의해 내버림받고 자애자비-신-어머니인 성모의 도움의 손길조차 없는 완전히 빈 상태.

이러한 빈 자者에서는 중력重力의 인력引力과 중생衆生의 척력斥力을 의도, 의지, 의향 없이도 능히 이기게 하는 그 이상 몇만 배의 운동력이 순수 사랑의 자유원자들의 가차假借<sup>1</sup> 없는 충돌로 발생한다.

못 중생들은 중력을 거스르며 더욱 찬 곳filling-more-place으로 높이 오르려고 숨 가빠 몸 바빠 도움달기하며 살지만, 빈 자는 중력으로 인함이 아닌 자신의 강력한 날갯짓으로 자신을 땅바닥으로 날아 던진다.

‘빈’ 존재로 살 곳으로. 진짜 삶이 있고, 진실의 깊이가 체험되는 흙땅humus에로. 산소-살균-과잉으로 사망하지 않으려면 두꺼운 무대 장막을 찢어내야 한다. 그리고 무대 밖, 인간의 거리로 내달려 뛰쳐나와야 한다. 여전히 그곳이 공연장리단公演場里團<sup>2</sup>길이라 해도. 인간 위장에 유익한 천박균이 남아 있는 곳.

1 가차假借: 「주로 ‘없다’와 함께 쓰여」 사정을 봐주거나 용서함.

2 ‘~리단里團길’의 이름 패턴. 里: 마을, 고향, 거리 단위 · 團: 무리, 집단, 단체, 조직.

인간 삶은 위아래가 뒤바뀌어upside down 있다. 이것을 빈 자신이 만들어 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때 찢긴 무대 장막 사이로 수많은 중생들의 얼굴들이 보이고 무대의 조명이 몸에 닿지 않는다. 어둠 속 버려진 온갖 소품들과 잡동사니들을 넘어서 뒷문 비상구로 나온다. 어둔 골목에 쓰레기들. 그러나 비로소 빈 자신으로 부활할 수 있다. 참삶.

심령이 빈. 자유와 사랑.

자아가 빈. 자유와 사랑.

일상이 빈. 자유와 사랑.

몽매<sup>3</sup>가 빈. 자유와 사랑.

저 높은 곳, 그 자유를 주시注視한다.

낮은 곳에만 실재함을 통찰洞察한다.

높은 곳으로 추락함을 감행敢行한다.

순수한 사랑, 그 자유.

그 외에는 다 빈 자.

---

3 몽매蒙昧: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

## 채

온갖 솜씨와 최신 의료 기술을 사용해서 시체를 교묘하게 산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고 상정<sup>4</sup>해 보자. 누가 봐도 졸고 있거나 쉬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의 모습이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 준다. ‘시체이다.’ 사람들이 시체가 의도했으리라 생각할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시체가 산 사람인 양, 산 사람인 체하며 있었다 생각할 때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분명 한두 마디 쓴소리들 하며 갈 것이다.

반대로 산 사람도 상황에 따라 죽은 체할 수 있다. 죽은 체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에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이야기가 나온다. 잡히면 생명이 위태하기에 미친놈인 체했다.

---

4 상정<sup>想定</sup>: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 또는 그런 단정.

‘채’. 사전을 찾아보면,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나와 있다.

왕릉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왕이나 왕비의 유골이 목이나 손목에 장신구를 한 채 안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관 속 뼈들은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 알려주지 않지만, 무덤의 형태나 크기 그리고 특별히 유해와 함께 발견되는 물품들을 통해 거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두개골 쪽 왕관, 목뼈 부분의 문장이 새겨진 목걸이,  
손목뼈 옆의 귀금속 팔찌, 손가락뼈 사이의 인장 반지...  
위의 장신구들을 한 채 발견.

이런 보고서면 정밀 검사 전이라도 안다.

뮤지컬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나오는 대사이다.

It's just a place. And our forefathers have been forced out of many, many places at a moment's notice. Maybe that's why we always wear our hats.

(전략) 아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자를 쓴 채로 다니는 걸지도 몰라.

유대인으로서 한순간 급작스럽게 쫓겨나야 하는 이 집은  
그저 하나의 장소일 뿐, 모자를 쓴 채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암울한 삶에 대한 예술적 표현이다.

한국의 아프고 슬픈 과거. 6·25 전쟁. 남쪽으로 피난 와 수십  
년을 보내고 이제는 체제가 다른 남과 북으로 따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실향민 중에는 고향에 갈 날 그리며 보파리를 짠  
채로 살다 가신 분들이 있다. 그림<sup>5</sup>의 삶.

‘채’.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의 뜻을 나타내는 말’, 사전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채’나 ‘채’나 말로 하면 달리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문장으로 이야기로 들어가면 차이가 보인다.  
확연히 다른 것을 기술하고 있음을.

채하는 채로 살 수는 없다 **I cannot live in pretense**. 생명  
있는 동안 인간은 욕망하고 추구하고 노력해야 사람답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나다운 상태를 웅숭깊이 품고 유지해야  
한다. ‘나인 채로’ 있기. ‘빈 채로’ 하기.

나는 나의 성정性情의 좋음liking을 신뢰하고 ‘지금-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 여기까지 거쳐 왔던 나라들, 지역들,  
동네들. 모두 미리 계산할 수 없었던 지도상 좌표들이었다.

---

5 그림다<sup>2</sup>: 명사형 그림 · 그리워하다. miss, long for, yearn for.

몸과 마음, 영과 혼, 혼과 백. 모두 급하고 강한 바람에 뿌리 뽑히고, 꺾이고, 부러지고, 시름시름 앓은 적이 수없이 많다.

그래도 한 번도 그때까지의 사람인 채하지 않고 직전까지의 나를 장사葬事<sup>6</sup>했다. 오상아픔喪我<sup>7</sup>. 다만 집안으로는 대대로, 개인적으로는 꽤나 오랜 기간 지니고 있던 영광의 흔적들, 성취의 징표들 중 일부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의 나’ 유골에 지녀 있는 채로 발견되기는 한다.

### 늘 감사, 늘 찬미, 늘 기도.

또한 이후 완전히 바뀐 삶을 먼 곳 타지에 와서 살게 되었을 때 내겐 전혀 익숙하지도 편하지도 않은 모자를 쓴 채 삶을 연명延命<sup>8</sup>했었다.

칭찬이나 인정, 인증이나 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도움과 이해조차 구할 수도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 스스로의 죄책과 보고픈 슬픔에 목을 놓아 울었을 뿐. 어떤 ‘체’도 안 했다. 나라는 과거가 녹아내리는 채로 살았다.

---

6 장사葬事: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함.

7 오상아픔喪我: 내가 나를 버린다(『장자』).

8 연명延命: 목숨을 근근이 이어 감.

누가 어떻게 여기든, 무어라 말하든 그들에게 해악이 되지 않을 나이기에 앞으로는 나만의 좋음liking을 품은 채로 깊고 곱고 맛과 멋있는 향기롭고 풍격風格<sup>9</sup> 깊은 삶을 건조建造<sup>10</sup>하고 있다. 문제나 한계, 불평과 불만과 같은 장애물은 없다. 없는 것들 일부러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분히 있는 것들 지닌 채.

일상을 현장 삼아.  
하루하루 건축 중.  
보따리 짐 싣 채로.  
나인 채로 천국을 산다.

나의 나 됨은  
은총 위에 은총.  
I am what I am  
by grace upon grace.

---

9 풍격風格: 글이나 그림 따위에서 나타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면모나 모습. 사람의 걸모양과 성품.

10 건조建造: 건물이나 배 따위를 설계하여 만들.

## 빈 채로

A5 사이즈 스프링 노트 9개, Letter 사이즈 1개, Lenovo ThinkPad 노트북, 맥북 에어, 아이패드, 숫자판 시계, 컴퓨터용 보스 스피커, 연필꽃이, 연필들, 스테이플러, 평화 33호침, 앤티크 노란 전등, 파버카스텔 데생 샤프, 지우개, 계곡에서 주워 온 돌, 옛날 우드 드라이버 헤드로 만든 기러기 한 쌍, 스탠리 컵, 낫 주물 초 받침대, 수놓은 원형 쿠션 둘, 테이프 디스펜서, 여러 전선들, 뒤뜰에서 주워 온 도토리들, 마우스, 옐로스톤 기념 마우스패드, 칼 자이스 망원경, 독서 안경 둘, 아이폰 두 개, 리넨 손수건 하나.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 나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건들이다. 개수나 무게나 적지 않다. 그러나 눈에 다 들어온다. 서로 연결이 된다. 오른손 왼손 뻗으면 다 닿는다. 이것을 함에 저것이 필요해진다. 연상적聯想的이다.

동시에 다 보이고, 배치가 변형적이고, 관계 맥락이 유치원 아이 연필 그림처럼 나선적spiral이다. 매일 여기 앉아 있는 두세 시간 동안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거나 요구되지 않는다. 공시적共時的synchronic이다.

잠깐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한다. 그때 테이블 다른 모서리 쪽에서 보면 역시 한눈에 물건들이 다 보인다.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다른 면들이다. 구체적球體的이다.

여기 앉아 글을 쓰기 전에 소파에 앉아 역시 두세 시간 음악과 커피와 함께 책을 읽었다. 이 글쓰기를 마친 후에는 2층으로 올라가 운동을 두 시간 정도 할 것이다.

매일 일상의 일routine이다. 한 번에 할 수 없다. 생각할 때도 순서가 있다. 장면들이 따로따로 그러나 이어서 떠오른다. 통시적通時的diachronic이다.

내 일 내 마음대로 하면 될 듯싶은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 일상의 반복하는 일이라 하여 Routine이라 표현한다. 어원상으로는 프랑스어 route(길, 도로)에서 유래되었다. 늘 같은 길을 가는 것, 습관적인 절차나 과정을 뜻하게 되었다.

사전에는 루틴이 형용사로 쓰일 때 ‘기계적인, 틀에 박힌’의 의미라고 설명한다. 흥미롭게도 변형이 용이하지 않다. 선형적線形的이다. 자칫 컨베이어 벨트 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전과 지금, 지금과 이후. 인과적因果的으로 매듭져 있다.

두세 시간            내 수명.

책상과 의자        삶 터.

물품들            생각의 사물로의 전환thing-turn.

글쓰기            사물의 사유로의 전환thought-turn.

다 보임            인과의 몽타주<sup>11</sup>에서 연상의 실체로.

‘빈 채로’는 나 스스로 불필요한 나들을 순수한 사랑의 거침없는 화염火焰<sup>12</sup>으로 분형焚刑<sup>13</sup>시켜 흑토humus의 자유<sup>14</sup>로 살아가는 지금-여기의 이렇게의 상태이다.

‘나 아님’이 빈 채로 여기 나로 살고 있다.

인과가 빈 채로 사유하며 연결하고 산다.

기계적 시선이 빈 채로 내 전체를 보고 있다.

부족함이 빈 채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본다.

타 버린 나인 채로 채와 빠로 살아나 숨 쉰다.

오를 날개 잃은 채로 돌아갈 흙 위에서 산다.

---

11 몽타주montage: 여러 장면이나 다른 이미지들을 이어 붙이는 기법. 진술을 토대로 얼굴 특징을 조합해 만든 얼굴 그림.

12 화염火焰: 타고 있는 불에서 생겨나는, 붉은빛을 띤 기운.

13 분형焚刑: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

14 흙땅의 자유: 자유의 인간. human of freedom.

있는데 없을 수 없다. 보이는데 녀 놓을 수 없다. 생령生靈  
인데 사는 기계가 될 수 없다. 죽을 존재이나 살아서는 나갈  
수는 없다. 생명이 충만히 현전現前<sup>15</sup>하는데 생기 없는 채로  
살 수는 없다. ‘빈 채로’ 산다. ‘빈 채로’ 욕망하며, 노력하며  
산다. 무엇보다 ‘빈 채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자유롭게 내  
싫음liking한다.

---

15 현전現前하다: (사람이나 사물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 전복

顛覆 · subversion

‘빈 채로’ 사는 사람, 빈 자는 병렬적並列的parallel<sup>16</sup>으로  
일상을 회로回路<sup>17</sup>한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부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온전히 ‘지금-여기-이렇게’ 병렬시킨다.

---

16 병렬並列: 여럿이 나란히 벌여 섬. 「전기」 전지나 발전기의 전극을 양극끼리, 음극끼리 각각 연결함.

17 회로回路: 「전기」 전기가 어떤 점을 떠나 도체에 돌아서 다시 그 점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길. 돌아오는 길. 「생물」 생체 내에서 진행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교대 과정 중 화학 반응의 경로가 순환하는 부분.

연속극이나 시리즈<sup>18</sup>가 아니다. 위치적으로 아래서 위로,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하나씩 하루씩 쌓아 연결시키는 식의 발상 자체가 비어 있다.

나와 나를, 나와 너를, 나와 그들을, 나와 사회를, 나와 기후를, 나와 기분을, 나와 성공을, 나와 실패를 직렬시켜 쌓아 올리거나 좌우로 실린더링<sup>19</sup>하지 않는다. 음(-)양(+)의 조화? 아니다. 양자택일의 사회적 설계이다.

과거부터 회상을 할 때면, 늘 그렇듯 콧구멍에서 센 바람이 나온다. 지금 여기의 호흡이 아니다. 훨씬 강한 내어 쉼이다. 존재의 전압voltage이 이어 붙인 과거 연수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만큼의 고전압은 과잉이다. 중간 쓰고 쓰라린 경험으로 찌그러지고 방전된 실린더 하나라도 있으면 내게 있는 의지와 소망은 고갈된다.

---

18 시리즈series: 같은 종류의 연속 기획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는 운동 경기, 같은 기준 또는 등급의 상품들. 「전기」 직렬直列: 전기 회로에서, 여러 개의 전지를 서로 다른 극끼리 맞대어 차례로 한 줄로 연결하는 일. 사람이나 사물들이 한 줄로 곧게 벌여 선 줄.

19 실린더cylinder: 그리스어 ‘구르다, 굴리다’의 뜻에서 유래. 원통, 실린더 기계, 기통, 회전통, 탄창. 동사로는 실린더를 달다. 글썽이는 cylindering을 ‘기통 수를 나열하여 늘린다’의 의미로 사용함.

지내다 보면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때가 있다. 시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직렬적인 상태가 운영의 중심 체제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나의 기본 구조가 되면 안 된다. 체제를 전복顛覆<sup>20</sup>시키는 정신the subversive spirituality으로 무장하고 이를 해체해야 한다. 나는 살고 ‘싫음’ 없는 나에 대한 파괴 활동 분자a subversive<sup>21</sup>이다.

이때 내 삶을 위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며 늘 역동하던 기계들과 밤낮없이 원하기만 하면 낮이 되게 해 주었던 조명들에 전기가 끊긴다.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자청했다.

이 몸통이, 이 정신, 이 의지만을 가지고 암중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 이 관계 속에서 더듬고 또 찾으며 내 일의 내일을 위한 부품들을 가지고 본질적이고 적합한 새 구조를 발명해 내야 한다.

진짜이며 날것은 나 자신뿐이다. 다른 것들은 작든 크든 재료가 무엇이든 제조일이 언제든 언제 어떻게 사용했든 인조人造이다. 이제 내가 혁명의 깃발을 들고 시체와 정크 junk의 산더미 위에서 내 삶의 근본적인 하나, 그 디테일을

---

20 전복顛覆: 정권이나 체제 따위를 무너지게 함. 자동차나 배, 기차 따위가 뒤집혀 엎어짐.

21 subversive(명사): 파괴 활동 분자, 위험인물, (정부 등의) 전복 계획자.

극단까지 *ad limitem* 가공加工<sup>22</sup>해야 한다. 인간으로 동시에 나로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구조적 해결법이다.

병렬적 회로를 만든다. 장작을 도미노처럼 길게 이어 놓고 태우는 방식은 거부한다. 그렇게 하면, 장작 하나하나의 불의 질은 보장되겠지만, 장작을 가로로 ‘지금-여기’에 모아 쌓아 불의 양을 풍성하게 하고 싶다.

흑백으로 나누어 한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흑은 수묵에 들이고 백은 여백에 놓는다. 인생 화폭의 사이즈는 비슷비슷하다. 다만 여백 안에 수묵하고, 수묵이 여백과 함께 조화할지, 흑백 가름 조야粗野<sup>23</sup>한 꼴일지. 이 차이.

화력의 총량은 장작을 어떻게 쌓든 계산적으로는 서로 다를 것이 없다. 인생 수명의 평균과 같다.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방식을 택할 뿐이다.

내가 나답게 원하는 삶의 ‘싫음’은 고유하고, 고요하고, 독특하고, 깊고, 흥락興樂의 일상이다. 전기로는 고전압이 아닌 대량 전류이다.

22 가공加工하다: (사람이 천연의 것이나 완성되지 않은 것을) 무엇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힘을 더하다. 「법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인공人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다.

23 조야粗野하다: (물건이) 거칠고 조잡스럽다. (언행이) 무모하고 막되다.

전압voltage을 높이는 회로를 전류current를 증가시키고  
원활히 하는 회로로 대체하고 싶다. 체제를 전복시켜  
바꿀 것이다.

죽음 앞에 가면 둘 다 차이는 없다. 그러나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련되어서는 천天和 地地, 바다와  
물의 차이이다.

여백의 열량으로 하루 일상을 비우고 싶다. 병렬의 전류로  
일상 구체를 전체로 만들고 싶다. V(볼트volt)가 높아질  
필요가 없다. 다만 더 큰 A(암페어ampere)가 있었으면 한다.

전압은 나의 삶에서 220V면 충분하고 좋다. 그러나 ‘빈 채로’  
나의 ‘싶음’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큰 전류가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이 어떻게 있었는지 어떠한 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대  
대전류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전압에 맡긴다. 늘 길고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한다.

## 도중

途中

저녁이 되었다. 9월의 어두워지는 하늘은 색색色色<sup>24</sup>이다. 하루 한 끼, 저녁 식사는 일상의 성찬盛饌<sup>25</sup>이고 일용할 성찬聖餐<sup>26</sup>이다. 하루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 좋은 기운을 준다. 오늘이 잠시 후면 어제가 된다. 아마도.

저녁이 준비되고 있는 지금은 글을 쓰고 있다. 글을 쓰다가 곧 일어나 식사 장소로 갈 것이다. 의자를 밀어 넣고 아이패드 충전을 확인하고 물품들을 제자리에 정리해 둘 것이다. 내일 11시 즈음이면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아마도.

---

24 색색色色: 여러 가지의 빛깔.

25 성찬盛饌: 푸짐하게 잘 차린 음식.

26 성찬聖餐: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성찬식에 쓰는 음식.

끝은 끝이 나야 한다. 오늘의 마지막 이 순간, 본능과 감각은 이를 끝으로 느끼고 있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끝. 자고 나면 내일 시작.

살아서는 끝나지 않는 삶이라는 길.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그 여정. 삶 자체에 끝이라는 것이 있을까? 없다. 분명하다. 도중途中<sup>27</sup>이다.

새벽도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수면도 모두가 도중이다. 시작과 끝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지만, 끈으로 묶여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녁이 된 것. 잘 시간이 된 것. 몸이 고단하고 지쳐 쉬이 필요한 것. 잠자려 누운 것. 잠들어 누워 있는 것. 깨어 일어난 것.

이들은 진행되는 추이推移<sup>28</sup>이다. 영어로는 progress가 된다. Before finishing이다. 끝은 없다. 경과이고 과정이고 추이이다. 삶이 끝이라 할 때까지는 도중in progress이며, 진행進行 중이다. 한국어든 영어든 그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가 어원이고 뜻이다.

---

27 도중途中: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길을 가는 중간.

28 추이推移: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이나 형편이 변하여 나아감.

나는 나의 출생에 대해 무관하다. 무지하다. 무념이다. 실제로 명백하게 그러하다. 계획도 의지도 생각도 없는 중에 태어났다.

나라는 존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다. 착상이 되고 임신되었다. 10개월 후 분만이 시작되고 출산되었다. 임신과 성장 그리고 출산이 끝났다. 시작과 끝.

해세의 존재와 부화 이야기. 이것까지 언급 안 해도 나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진행 중이다. 사건-사건, 구간-구간, 기간-기간. 시작과 끝이 있다고 표현할 뿐, 나의 존재 자체는 삶의 길 위에서 죽음이라는 전방을 향해 일방통행하고 있는 중이다.

‘빈 채로’ 있는 빈 자는 이에 대한 깊고 분명한 앎을 체득한 채 살아간다. 종을 친다. 종이 있고 막대가 있고 종 치는 이가 있다. 종이 타격에 진동하며 소리로 운다.

중후 광폭한 울림이 주위에 퍼진다. 종 쳤던 이가 그 소리에 마음을 내어 준다. 이내 종소리는 사라진다. 쳤던 이도 막대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종과 채만 남아 있다.

사물의 진행과 추이는 볼 수 없다. 시작과 끝으로만 해석, 표현될 수 있다. 사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건과 예술도 시작과 끝이 있다. 중간의 과정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실의 첫머리와 실마리를 잡고 실타래를 푸는 과정 그리고 미결이든 완결이든 꼬리로 끝난다. 노래가 시작됐고, 노래가 끝났다.

죽음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인간의 삶은 끝이 없다. 밧줄이나 끈으로 묶은 듯 뒷사람 두 손으로 쪽 연결해 놓고 하는 꼬리잡기 놀이가 아니다. 그 끝을 잡으려고 혹은 끝장을 보려고 함이 집요가 쌓여 썩은 악취, 집착이다. 시종념始終念 없이 뒤 비운 채로 앞 걸어가는 도중이다. 종료 없는 진행. 반복 아닌 축복.

## 와중

渦中

‘빛이 있으라要有光<sup>29)</sup>’ 성경에서 빛light은 신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들 때 처음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월성신日月星辰 광명체光明體들을 만들었다.

우주 전체를 어찌 말로 논할 수 있겠는가마는 최근 현대 과학의 발견과 설명으로는 빛은 어둠의 부재라고 한다. 암흑의 어둠이 우주 전체의 디폴트default이고 지구나 달 같은 반사체 별 말고 태양과 같은 발광체 별들이 있는 천체계가 예외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

29 빛이 있으라. 要有光. Let there be light. 창세기 1장 3절.

어떤 연유에서인지 어떤 과학자도 답할 수 없지만, 발광체 별인 태양과 지구는 우주 희귀하게 가까이 있다. 일례로 지구와 가장 가까운 발광체 항성이 지구와 4.24광년 떨어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태양과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8분 거리이다.

암흑과 혼돈에 창조의 말씀-빅뱅이 일어나 우주 천지가 빛과 질서로 형성되고 안정되었다는 성경적 순서와 설명과는 사뭇 다른 천체물리학의 데이터와 해석이다. 시비是非의 영역이 아니라 이해理解에 해당한다.

어두움과 차가움이 지구 자체이고 빛과 열은 외계물이다. 태양의 빛과 열을 받아 지구는 빛과 어둠, 낮과 밤, 각 계절들이 공재共在coexistence 혹은 혼재混在intermingling<sup>30</sup>하는 별이 되었다.

원자로는 지구의 바다와 강, 인간의 몸속에 있는 물과 정확히 똑같은 수소가 태양에서 타고 있고, 그로 인해 지구의 생태와 기후가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

30 혼재混在: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섞여 있음. [예문] 급진과 개혁의 혼재 단계. 수많은 사상과 체계가 혼재 또는 대립한다.

명사로의 Weather는 폭풍과 바람을 의미했다. 지금은 날씨 즉 대기의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한다. 동사로의 ‘바람, 폭풍에 노출되어 닳고 부식되는 환경에 맞서다’의 뜻에서 현재는 ‘시련·위기를 잘 견디고 극복하다’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이상 기후로 지구 이곳저곳이 혼돈 상태라고 매일 뉴스로 전해 듣고 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날씨가 새로운 상태, 뉴 노멀New Normal이다. 이러한 와중渦中<sup>31</sup>이다. 지구 생태 환경의 현재 기류氣流<sup>32</sup>는 와류渦流<sup>33</sup>vortex이다.

이제 날씨weather는 소용돌이치듯 강하고 급하게 변하는 바람이고 폭풍weather이다. 정치-경제-사회-관계라는 대기의 상태도 날씨와 다름이 없다. 날씨와 동조同調되어 있다. 변화 무쌍. 환골탈태. 격세지감. 천지개벽.

지구의 생태 환경과 상태가 이러한데 인간의 생활 환경과 상태가 어찌 고요, 평안, 온화, 광명이겠는가?

---

31 와중渦中: 흐르는 물의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이나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32 기류氣流: 상황이나 상태의 움직임. 「천문」 대기 중에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

33 와류渦流: vortex. 소용돌이, 회오리바람. (전쟁·혁명·논쟁 등의) 소용돌이, 혼란스러운 사태, ~의 와중.

어둠 속이어서 볼 수 없어 해매고, 회오리바람의 잦은 출현으로 이제까지의 성취와 소유가 파손되거나 파괴되기도 한다. 소용돌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휩쓸려 호흡조차 곤란한 죽을 지경에 이르거나 영영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다.

작금<sup>34</sup>의 인생은 와류渦流이고 인간은 와중渦中이다. 이 상태를 오히려 사실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거부나 저항, 불평과 불안은 자신 외에는 그 어떤 대상 외부의 현상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박한harsh 날씨 weather를 견디고 이겨내는(동사 weather) 진정한real 용사 heart가 되어야 한다.

故有無相生、難易相成、長短相較、  
高下相傾、音聲相和、前後相隨。

다들 좋은 것만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있음과 없음은 함께하며, 어려움과 쉬움도 함께 존재한다. 길고 짧음도 동시에 있으며, 높고 낮음도 서로 기대어 있다. 음정과 소리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도 서로 이어져 있다.

---

34 작금<sup>34</sup>작금: 어제와 오늘을 아울러 이르는 말.

天下皆知美之爲美、斯惡已。

皆知善之爲善、斯不善已。

세상은 다 아름다운 것만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다들 좋은 것만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도덕경』 2장

공재共在와 혼재混在 그리고 그들의 작용으로 인한 소용돌이  
현상vortex. 그 와류swirl의 흐름에 살아가며, 그 와중in  
vortex에도 살아 있음에 인간은 진정한real 사람heart<sup>35</sup>으로  
발현되고 표현되고 구현된다. ‘빈 채로’의 이.

---

35 heart: 심장, 마음, 감정.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용사. [예문] a sweetheart: 애인, 연인. a true heart: 참다운 용사.

## 기색

氣色

빈 채로 사는 중 때때로 사람들을 만날 때면 언제부터인가  
 分別과 판단이 안 된다. 그저 그 사람의 기운, 정확히 말해  
 품고 있는 빛과 온도가 느껴진다.

‘정신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을 ‘얼’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똑같은 순우리말 ‘얼’이 ‘밖으로 드러난 흠이나  
 타인에 의해 당하는 피해, 탈이나 사고’를 뜻하기도 한다.  
 사전에 예문으로 나온 문장이다.

한글에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 있다.

일 처리에 얼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자신의 몸과 대비되는 정신인 ‘얼’이 없거나 틀어진 채로 외부로 나타나면 흠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다른 이의 ‘얼’이 그러한 상태로 나에게 표출되면 피해, 우리로 그리하면 함께하는 일에 탈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빈 채로’ 사는 사람은 얼이 빠져 있는 상태를 모른다. 깨어 운동하는 낮이 그의 의식과 무의식, 이드와 에고, 육체와 혼魂 모두를 비워 내고 있다. 꼭 차오른 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얼’이다.

얼은 낮이라는 혼, 곧 기氣life-force이다. 모든 물체物體에는 외형과 본질 혹은 본성이 있다. 질質과 성성에 해당하는 것이 기氣이다. 생명력. 운동력. 몸은 반드시 기와 함께한다. 몸이 소멸될 때까지. 기는 몸의 특정한 부분에 스스로를 드러낸다. 기가 몸과 분리될 때까지.

얼의 꼴, 그 모양을 얼굴이라 한다. 대기大氣the atmosphere도 그 꼴, 모양을 기체氣體a gaseous body라고 표현한다. 얼의 상태, 기의 상태가 얼굴에 기운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기색氣色<sup>36</sup>이다. 영어로는 countenance<sup>37</sup>.

---

36 기색氣色: 어떤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얼굴빛. 앞으로 일어날 현상이나 행동 따위를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는 눈치나 감새.

37 countenance: 라틴어 continentia(억제, 절제, 자제)가 어원. 마음의 태도가 얼굴에 표정으로 드러남. 기색, 안색.

성경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 하나라고 주저함 없이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룻과 보아스’이다. 룻은 남편을 여인 과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자신의 결정이라 하며 남정네 없는 집안 살림을 꾸리며 살게 된다. 주로 보아스라는 부호의 땅에서 농사한 밀들을 수확해 가면, 차마 밀단에 붙어 있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밀 낱알들을 주워 살아갔다.

누가 생각해도 심지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안타까운 사연, 누가 보아도 심지어 질투심 많은 동네 토박이 여인들이 보기에든 가여운 힘겨운 상황이다. 그러한 와중에 룻은 ‘빈 채로’ 하루하루 일상을 자신으로 살아간다.

누가 보아도 심지어 모든 것들에 풍족한 보아스가 보아도 몸의 자세가 늘 똑바르고 거친 옷이지만 청결하고 단정하고 특별히 땅바닥 일을 마치고 밀단이 아닌 하루 먹을 밀 이삭 다발을 머리 위에 올리고도 행복스레 미소하고 있는 그녀의 얼굴. 속 얼이 빛과 온도로 드러남. 그 기색이 바로 자신으로 산다 함이다.

밀을 기르는 보아스가 볼 때 신이 내려 준 약속된 아내가 아니면 무엇일까? 땅이 없고, 의지할 남자가 없고, 하여 쟁기도 낫도 필요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여인 룯. 그 마음.

그런데 헥타르와 콤바인으로 살아가는 보아스와 밀을 기르는 주위 모든 지주들에게 이삭 한 알 한 알의 감각을 지니고 있는 빈 심령의 소유자 룯의 기색은 샤갈의 판화 색칠처럼 세상에 없는 황홀과 경이로 보였을 것이다. ‘빈 채로’ 사는 이의 낮은 천사의 기색이다.

# 무순

無順

이제 60대가 된 파리의 남자 전기현 씨가 진행하고 있는 KBS 클래식 라디오 〈세상의 모든 음악〉. 많은 한국인들이 애청하고 애정하는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그에 대한 해설로 가득 찬 알찬 프로그램이다.

개인적으로는 기상 후 아침 독서와 공부, 글쓰기와 편집 작업의 서너 시간 중 반 정도를 집 밖 제네바 스피커를 통해 집 안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늘 어제 저녁의 진행을 듣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그리고 시그널 음악인 ‘Tiger in the Night’. 매일 반복되는 연주 속에서 어제의 날씨가 따뜻한 저녁 인사

중 한 줄의 가사로 들려질 때, 시간의 순서는 끊긴다. 낱자의 저녁이 모든 저녁으로 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직장-가정-회사나 사업. 이런 순서가 우리네 낱자로 사는 모두의 인생 경로이다. 그 누구도 지나온 경유지와 다음 목적지 없이 인생 기차에 몸을 싣고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빈 채로’ 사는 중 경험되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 없는 것이니 보이지 않고 의식 없으니 말하지 못하고 몸체 없으니 만질 수 없는 과거와 미래 중간에 현재를 넣어 순서라고 한다. 개념으로는 이해된다. 그러나 지금-여기-어떻게도 없다. 있을 수 없다. 순서로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시간의 순서, 기차놀이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여기-이렇게 있는 존재의 실재 공간에서는 순서는 불가능하다. 부질없다. 공염불이다. 중언부언이다. 요하는 우리 인간의 삶은 무순無順<sup>38</sup>으로 진행된다. 어제 낱자가 오늘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무순.

---

38 무순無順: 배열하거나 분류할 때 일정한 차례가 없음.

어제 있었다-오늘 있다-내일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험상 편의상 개념상 순서로 파악해 놓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제라는 곳 어딘가에서 현재-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기록본을 지금 이곳에서 생중계로 듣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KBS 라디오 콩 생각이 나서 그것을 통해 녹음본이 아닌 지금-생방송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했다면 이 역시 여기 나에게는 생중계, 곧 지금-현재-방송이다.

‘빈 채로’ 살다 보면 자유와 사랑이 늘 채워져 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번잡하고 난잡하고 공연하고 불필요한 것들에게 순서를 할당해 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저 지금 내가 여기서 깨어 온on 시켜 놓은 것들과만 봄이 있고 들음이 있고 만짐이 있을 뿐이다. 순서는 없다. 상황과 상태가 변할 뿐, 지금이 모든 지금이다.

과거는 아뢰야식 즉 과거 행위와 사건들에 대한 기억의 거대 데이터 저장 플랜트이다. 순서대로 기억하다가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순서는 인위고 자아이다. 그 정체와 본질을 알았다면 그 수준으로 다루면 된다.

구멍을 발견했다면 구멍을 다 파헤칠 필요는 없다. 쥐를 꼭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그 구멍 입구에서 목적과 의도에 따라 조치하면 된다. 순서를 하지 말자. 순서를 주지 말자.

순서대로 하지 말자. 상황과 상태의 변화를 주시하며 의식하고 직관적으로 나의 반응을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미래는 가공과 개념의 장소이다.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 갈 곳, 내게 올 곳. 이 정도까지가 좋은 듯하다. 순서를 하지 말자. 순서를 주지 말자. 순서대로 하지 말자. 역순逆順도 순서이다.

몽유병 환자처럼 뉘 놓고 팔려 나가 인생 내내 헤매게 된다. 순서의 사슬을 끊고, 페이지의 순서에 구애받지 말고 다소 무작위<sup>39</sup>로 하루<sup>40</sup>해야 한다.

순서에 대해 ‘빈 채로’, ‘싫음’의 움직임 곧 즉흥과 직관을 신뢰하며 무슨 일에도 나아간다. 이 방식일 때 나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맛보며體驗 살아갈 수 있었다. 내가 나를 나답게 나로 경험할 수 있었다.

---

39 무작위random: 14세기 중세 영어에서 처음 사용. 황급, 기세, 돌진이 원래의 의미 → 이후 움직임의 불규칙성, 예측 불가능성 → 현재는 임의, 무작위, 무계획.

40 하루하루(글쓴이의 조어): (과거와 미래의 어느 막연한 날이 아닌) 바로 이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현재에 존재하다.

## 숨다

정신을 의식이라 했을 때 정신은 휴식을 한다. 의식에서 무의식 상태로 전도顛倒<sup>41</sup>되는 것이다. 졸거나 자거나 할 때 정신은 없어진다. ‘정신 차려!’ 혹은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며 누군가 번뜩 큰소리하지 않으면 정신없이 졸거나 잔다.

이에 반해 놀랍게도 몸은 숨을 쉬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세세한 의학적 설명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기능하고 작동하고 운동하고 있다. 쉽잖아. 원래 의식이 없는 개체들인데도.

---

41 전도顛倒: 위치나 차례가 거꾸로 뒤바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늘 보여 흔해 빠진 것과 아직 혹은 이제는 못 보는 것들. 봄은 몸이다.

숨은 몸의 영혼이다. 영혼은 몸이 영생하지 않기에 영원할 수 없다. 영혼과 몸은 숨으로 묶여 있다. 정신과 의식은 몸이다. 몸이 의식하고 몸과 함께 정신은 배양되고 성장한다.

해서 무슨 이유에서든 의식이 없는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도 숨은 쉬고 있다. 영혼이 있는 생명모음체 즉 몸뚱이로 존재하고 있다. 정신이 멀쩡하다가도 불의의 사고나 급작스러운 사태로 사망하게 되면 정신과 의식은 이미 없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숨 끊긴 영혼 없는 몸死體이 된다.

주변 사람들은 놀람과 슬픔으로 그를 보고 있거나, 멀리서 듣게 된다. 혹은 그와 전혀 관계없는 이들도 시청자로 그 장면을 보기도 한다. 심한 훼손이든 외상이 그저 상처 몇 군데이든 상관없이 보고 있는 몸은 숨이 없다. 영혼이 없다. 치료, 수술, 재활, 회복. 폐와 함께 호흡하는 영혼의 숨이 있어야 가능하다.

호흡하고 있는 것呼吸著的들은 볼 수 있고seeable 없고와 전혀 관계가 없다. 특히 인간이라는 생명존재체에 있어서 그러하다.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숨’은

명백하게 주시注視할 가치가 있는watchable 몸과 하나 된 영혼의 살아 있음이며 운동하고 활동함이다.

숨/sum/은 순우리말이다. 의미는 호흡 → 생명 → 영혼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 한국어는 현재 언어학계에서 ‘고립어language isolate’로 보고 있다. 어원학적으로 etymologically 외래어 차용이 없는 단어이다.

몸으로 내쉬는 숨 = 숨에 숨겨 있는 영혼.

영어로는 숨은 Breath이다. IPA<sup>42</sup> 기준 발음을 한글로 하면 /브렛쓰/ 정도 아닐까 한다. 그 뜻은 1이 숨과 호흡이고, 2가 생명, 생명력이다. 유래는 내쉴, 발산, 곧 호흡이다. 숨보다 호흡이라 하는 것이 좋은 단어이다.

호흡은 Breath이었고, 영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무얼까? 둘이 있다. Soul, Spirit. 둘 다 ‘내쉴, 숨, 바람’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영혼의 의미까지 발전한 단어이다.

둘의 차이라고 한다면 Soul은 인도유럽어 영향을 받은 흔적 곧 ‘sai-(묶다bind, 붙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육체와 결합된 숨, 생명 존재의 원리로서의 영혼이다.

---

42 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국제 음성 기호.

기실 영혼을 Soul이라 해도 Spirit이라 해도 무방하다. 숨처럼 몸을 드나들고 주위에 퍼져 나가는 존재의 기운이 바로 영혼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숨’, ‘Soul’, ‘Spirit’. 모두 발음상 /s, 스/로 시작이 된다. 한글의 시옷이다.

언급한 바대로, 서로 역사적·언어학적 연결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영혼에 해당하는 순우리말 단어와 영어 두 단어를 놓고 볼 때, /스/라는 공통되는 첫 발음은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 여겨진다.

/s/라는 발음은 인류가 언어가 아닌 소리로 기본적 소통을 했을 때부터 이용했었던 것 아닐까 추측해 본다. 숨소리, 바람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등. 영어에 Sigh라는 단어가 있다. 발음은 /sai, 싸이/ 역시 시작이 시옷 발음이다. 뜻은 ‘숨 쉬다 → 한숨 쉬다 → 탄식하다’이다.

/스, 쓰/는 음상학音象學phonosemantics적으로 보편성을 가진 발음이라 여겨진다. 언어가 발명되고 통용되고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식·호흡 관련 단어들에 /s/를 연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빈 자는 외부의 그 어떤 영향에 대해 ‘빈 채로’ 자기 성정性情을 숨 쉬며 존재한다. 이러한 자의 몸과 영혼은 봄과 보임과는 상관없다. 하여 빈 자는 늘 자기 숨에 있다. 숨어 있다. 그저

남에게 보이지 않게 도피하여 은둔한 채 산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숨다’. 역시 고유어이다. ‘숨’과 ‘-다’의 간단한 구조이다. 어원적 의미는 숨을 이용해 가만히 있다. 호흡을 멈추고 몸을 감춘다는 뜻이다.

도망, 도피, 은신, 은둔의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움 붙어 있지 않다. 생명을 위해 시대와 상황, 자신의 상태에 부합하며 존재와 삶을 고요히 숨기는 주체적인 영혼은 그 숨으로 ‘숨다’를 한다. 숨겨진 보물들. 천부天府<sup>43</sup>.

‘빈 채로’. 몸은 영혼을 숨긴 채로. 영혼은 몸과 숨 쉬는 채로. 영육이 한 목숨 되어 산다.

---

43 천부天府: 땅이 매우 기름져 온갖 산물이 많이 나는 땅. 자연적으로 요새를 이룬 땅. 천자天子의 창고.

## 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잘 때 나는 아이폰을 침대 머리판과 매트리스가 만나는 그곳에 둔다. 그렇게 한 지 꽤 되었다. 베개 밑은 아니고 그 위쪽, 머리맡에 두고 잠들고 깨어 시간을 확인한다.

‘머리맡’, 침대에 누운 머리 부근이나 그 언저리가 사전적 설명이다.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어원학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말’이 ‘맞-’(마주하다facing)에서 나온 말로 보는 견해와 접하게 되었다.

현대 한국어 표현에는 사용되지 않는 명사로서의 ‘말’은 위치나 ‘자리, ~쪽, 방향’을 말할 때 사용되었었다. ‘앞말, 뒷말’. 앞말은 ‘앞에 마주한 자리’, 뒷말은 ‘위쪽에 맞닿은 쪽’

이 된다. ‘머리말’의 접미사로만 흔적이 남아 있다. 대신 의존 명사 ‘쪽’이 역할을 맡고 있다.

공간과 위치를 나타내었던 명사 ‘말’, 관심이 생긴 말에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말’은 주로 ‘-는/-던 말에’의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을 한 바로 그때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던 말에 나머지 ‘말’의 사전적 정의를 말하자면, ‘어떤 일을 기왕 해 오고 있는 때’이다.

‘말’은 한때 ‘마주한 곳, 맞은편’이었고 지금은 위의 설명대로이다. 단어 공부하려고가 아니다. 나의 ‘삶말’은 공간적으로 무엇을 담고 또 마주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생명 있는 말에 어떠한 삶을 가꾸어 가고 있는가?

내 ‘삶말’은 어떤 질량의 싶음과 상상, 꿈과 소망, 노력과 행동과 맞닿아 있는가? 오늘이 주어져 지금에 존재하는 말에 나는 어떠한 나로 존재하고 있는가?

‘머리말’에 놓는 아이폰 외에는 침대 관련 침구류들만 있다. 침상에는 다른 무엇도 없다. 아이폰만 다른 곳에 놓으면, 내 침상은 ‘빈 채로’ 있다. 핵심은 나는 나의 ‘삶말’이 ‘빈 채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참된 삶의 필수불가결 용품들 곧 생존물품들, 사랑 표현들, 흥락거리들, 감사 마음들, 일상 정신… 이런 견고한 침대 프레임, 딱딱한 스프링 매트리스, 간단 세련된 하양 침대 헤드, 옆으로 누울 때 편한 하양 베개, 은은한 하양 이불 냄새…

‘나말’이 이런 ‘빈 채로’면 참 좋을 것이다. 부족이 있을 수 있을까? 충분하고 감사할 만한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권태 ennui-고통 pain-양태처일 兩態處一’말이 아니다. 비어 있는 그리고 비워 차오르는 이 흥미롭고 유익한 전변무상 轉變無常<sup>44</sup>의 변화, 그 말김의 순간에 나는 지금-여기-이렇게 깨어 깊고 편한 숨을 쉬고 있다.

니체에게는 잠자는 것, 수면은 단순한 생체적 욕구와 행위가 아니었다. 쉽게 생각하고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이고 숙제였다. 불면증, 과잉 노동으로 인한 수면 시간 부족, 오락과 향락으로 인한 밤샘. 이런 것말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해 수면 역시도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한 표현이다. 좋은 잠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침대와 잠 이야기가 내 일상성의 핵심과 통한다.

---

44 전변무상 轉變無常: (어떤 대상이) 끝이 없이 바뀌고 변함.

내 삶은 영면永眠말에 있다. 사는 말에 ‘빈 채로’ 나를 낙성落成<sup>45</sup>하고자 하는 ‘싫음liking’이 내 성정性情에 가득 차 있다. ‘말’이 ‘~쪽, 방향’이든 ‘~하고 있는 차에, 순간에’이든 둘 다 나와 가까이 마주하고 있다. 나는 전혀 완벽·완전말 아닌 나 자신과 매일 일상을 사는 말에 그와 함께해 나갈 것이다. 이때 일상은 내게 하양 향기 말이다.

---

45 낙성落成: 건축물을 완성하여 공사를 끝냄.

## 석상

石像

프란츠 카프카가 절친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이다. ‘그러나 불평한다고 목에서 땀돌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아. 특히 땀돌을 좋아하는 경우에는(1903. 11. 8.).’

친구 오스카가 이탈리아 전장에서 전사한 후 2년 뒤인 1917년 노트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그대는 숙제이다. 사방 어디에도 학생은 없다(1917. 11. 12.). 동일한 인간 속에 완전히 다르면서도 동일한 객체를 갖는 인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또다시 유감스럽게도 동일한 인간 속에 서로 다른 주체들이 존재한다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1917. 12. 23.).’

‘그 누구라 해도 만약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해를 가하면 연자멧돌을 그 목에 매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마 18:6).’ 예수의 말씀.

알베르 카뮈는 인간이 사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불가해하고 무의미하다고 파악했다. 그의 유명 저서 『시지프 신화』에서 현실 세계의 부조리absurdity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과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한다.

일국의 왕이었던 시지프는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그 형벌로 죽지도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노역의 삶을 살게 되었다. 커다란 바위를 바닥에서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고 굴러떨어지면 다시 그리고 또다시. 무한 반복의 형벌이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은 작품 안에 세상살이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평가받는 명작이다. 장녀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이 분노하며 독설하는 장면의 대사가 참으로 세련되고 문학적이다. ‘망은忘恩이여! 너는 대리석 마음을 가진 차가운 악마로다Ingratitude, thou marble-hearted fiend!’

‘무거워 죽겠다’ 하며 ‘이것만 없으면 살 만하겠다’고 불만을 갖는 자신의 삶의 상태와 방식으로서의 멧돌들. 카프카는 그 멧돌들을 맨 채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라

진단하고 예측한다.

그들 속내까지 침투하는 예리한 광선으로 검사한다. 진단 결과는 자신들이 선택한 맷돌들과 이미 뿌리 깊게 친밀해져 있고 앞으로도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는 크고 단단한 결석 結石들이 그들의 무의식장臟에서 발견된다.

죽겠다고 불평하는 이. 그 원인인 맷돌을 좋아하고 있는 속내의 사람. 동일인이다. 숙제는 주어졌고 풀어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다. 그런데 숙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맷돌을 지니고 살기로 한 인생. 카프카 생각.

순수한 사랑이 자유를 체험하게 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요즘 보기 드문 희귀종으로서의 인간이다.

만약 사랑 외에 모든 것에 ‘빈 채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삶을 조소하거나 시비하거나 질시하거나 질타한다면, 그 자는 연자맷돌a millstone을 자기 목에 묶어 바다에 투신하는 비참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예수님의 생각.

영국 속담처럼, 왕관을 쓴 머리는 무겁다Heavy is the head that wears the crown.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무론하고 세상만사 인간 결국은 헛되고도 허무하다는 관점을 가진

전도서의 기술자도 말한다. ‘부한 자는 풍요로움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한다(전 5:12).’

하물며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의 천민이나 독재 국가의 노동자들, 최빈국에 태어나 운명적 가난 속에 사는 이들,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행한 문제 행동을 훌쩍 넘는 가혹한 형벌로 짓값이 아닌 핏값을 치르고 있는 이들은 살면 살수록 정신과 육체 모두 고통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

너무 무겁고 커다란 바윗덩이를 떠안고 무의미하게 이리저리 옮기며 이를 무한 반복해야 하는 부조리의 인생이다. 카뮈의 생각.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에서 상호 간 경험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경우 이해understandingness<sup>46</sup>는 부재不在한다. 대다수가 이해利害와 득실得失을 계리計利<sup>47</sup>한다. 경제<sup>48</sup>가 아니라 금전.

---

46 understandingness: 이해심을 가진, 이해심 있음, 양해함.

47 계리計利: 이익이 되는지 여러 방향으로 재어 봄. 이익을 얻으려고 힘씀.

48 경제economy: 그리스어 oikos(eco)+nomos(준칙, 운영). 집안 살림 운영의 어원적 의미.

경쟁과 성취는 준법과 노력? 사기와 배신은 범법과 욕심? 묻고 대답한다. 내게는 흑돌과 백돌로 각각 달리 보이지 않는다. 회색 돌들로 보인다. 내 심安心眼이 오염되어 그런가 싶기도 하다. 리어왕이 일갈一喝한다.

‘사망謝亡<sup>49</sup>들이여! 돌같이 굳어 버린 마음들이여! 지옥에서도 반기지 않을 자들이여! 이미 지옥을 살고 있구나!’ 셰익스피어 생각.

고독과 고요, 사람과 사랑, 자유와 자율 무엇보다도 감사와 평안이 노아의 방주에 승선했던 동물들처럼 한 쌍으로 내 안에 참다운 나로 들어와 있다.

황금과 옥좌, 마블marble<sup>50</sup>과 보석寶石, 무엇보다도 골드러시<sup>51</sup>와 FOMO<sup>52</sup>라는 욕欲塊<sup>53</sup>의 거대 석상들. 세상의 모든 추앙받는 석상들끼리 누가 제일 센지 치고받고 싸우게 하거나, 그럴 설득력도 가능성도 없다면, 내 몸소 해머 hammer질로 돌가루 되기까지 빠개 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49 사망謝亡(글쓴이의 조어): 감사를 상실한 마음. 감사가 소멸된 정신. 감사가 지워진 뇌.

50 마블marble: 대리석大理石. 중국 윈난성의 다리大理 지역에서 유래함.

51 골드러시gold rush: 특정 지역에서 금이 발견된 뒤, 부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

52 FOMO(포모): Fear Of Missing Out. 자신만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심리. 코인 광풍의 요인 중 하나.

53 욕欲塊(글쓴이의 조어): 욕망의 덩어리. 塊: 덩어리 괴.

천 길<sup>54</sup> 밑 게헨나 골짜기로 흩뿌릴 것이다. 나의 일상. 나는  
한 길 ‘빈 채로’ 가볍다.

---

54 길<sup>2</sup>: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길이를 나타내는 말.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여덟 자 혹은 열 자.

## 수내면

水 內 面

흔히들 인생을 ‘흐르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 인생, ‘상선약수 上善若水(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라 말한다.

물의 성질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막히면 굽어 돌아 흐르고, 생명체의 근원이 되지만 내세움 없이 그저 늘 새롭게 흐르고, 어떤 모양에 담겨도 그 형태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융통성과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더 나아가 수원水源에서 발원해서 흐르고 흘러 결국 바다에 이르는 곡절과 만남의 과정, 그 시작과 끝을 인간의 생애와 같다고 말한다.

이 말들은 하등 결함이 없다. 완벽한 비유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안다. 전심으로 그 전체에 동의하지 않을 뿐.

물의 성질, 흐름, 시종始終. 나는 안다. 인간으로서의 내 성정性情은 물의 본질과 상태와 다르다는 것을.

나는 안다. ‘빈 채로’ 무애하고 자유롭게 사랑함에 생명을 다하는 나의 싫음liking(애호, 취향, 상태)은 물의 흐름과 다르다는 것을. 나의 ‘싫음’의 파동은 무지향無志向<sup>55</sup>, 무지향無指向<sup>56</sup>으로 전방면향全方面向omni-dimensional적.

나는 안다. 나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변식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회귀성 물고기와 전혀 다른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연어는 짙물에서 민물로 이동해 그 생활사生活史를 마감한다. 민물장어는 어린 시절 유리실 같은 몸으로 수천 킬로미터 올라와 살다 때가 되면 그 거리만큼 바다를 향해 헤엄쳐 가 산란을 하고 생을 끝마친다.

---

55 지향志向: 어떤 목표에 뜻이 향함. 또는 그 향하는 의지. 「철학」 의식의 기본 구조로서, 의식이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음.

56 지향指向: 정한 방향으로 나아감. 또는 그 방향.

나는 안다. 나는 바다라는 궁극의 세계, 하나의 의식 혹은 우주적 전체성에 갈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종교적 엑스터시 경험, 사후 천국으로의 입성, 명상이나 수행을 통한 무아無我와 무위無爲의 경지가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 모두, 이생 민물고기인 나에게 일견一見 생각하게 하거나 호기심을 가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나와는 물관계 沒關係<sup>57</sup>!

수원지에서 바다까지 수천수만 킬로미터 길이의 강을 노트에 그려 본다. 나는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와는 평생 관계없는 존재이다.

나는 어느 위치, 어느 기후, 어느 생태, 어느 수온대帶 region<sup>58</sup>의 생명체 군락群落에 속해 사는 개체이다. 세대가 지나 자리를 옮겨도 동일계the same region이다. 물을 거슬러 올라도 그 안이다. 양생과 섭생, 종생<sup>59</sup> 종료.

나는 이를 알고 있다. 의식하고 이 삶에 깨어 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저 대대로 전해 와서 혹은 어떤 저명한 이가 말해서 혹은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57 沒關係(méi guānxi): 상관없다. 관계없다. 문제없다. 괜찮다.

58 대帶region: (명확한 한계가 없는 광대한) 지방, 지역, 지대. [종종 복수형] 부분, 영역, 경境, 계界.

59 양생養生: 오래 살도록 몸 관리를 잘함. 섭생攝生: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잘 관리함. 종생終生: 목숨이 다할 때까지의 동안.

그 말들을 기준 삼아 살 수도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지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둘 간의 의견상 차이는 없다. 다만 나는 안다. 그저 ‘일어난 것’과 내가 ‘야기한 것’과의 엄연한 내용의 차이를.

말은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생각으로 그러나 각기 그럴싸하게 할 수도 있겠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도전과 열정과 패기를 품고 행동하며 살자!’ 아니면 ‘정성과 노력은 분명 중요하지만 불가항력적 운명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자!’

그래도 나는 안다. ‘해야만 하는 것’이나 ‘가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살도록 주어진 때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물 근원으로 회귀하는 본능’이 아니라 ‘지금-여기 물 흐름 속 수내면水內面에는 충분히 넓고 깊고 다양한 삶이 있다’라는 앎을.

무궁 광대한 바다 한가운데로 역영力泳<sup>60</sup>해 갈 것 없다. 다만 바다의 소금 향이 때때로 불어와 무아와 무위의 고요와 평안이 일견 경험되는 물 표면 위로 살며시 헤엄쳐 나와 매일 잠시간 머리끝만 올리고 있어도 된다.

물이 ‘빈 채로’ 물과 만나는 바로 고기에서.

---

60 역영力泳: 힘껏 헤엄을 칠. 또는 그 헤엄.

## 영공

零空

건축 공사 현장에 비계가 307개 설치되었다. 307을 숫자가 아닌 문자로 하면 ‘삼백칠’. 호기심에 찾아보니까 오래전 사용하던 로마 숫자로는 ‘CCCVII’<sup>61</sup>이다. 중국에서는 三百七, 십 자리가 비면 그대로 생략했다. 현대 중국어로는 三百零七이라 표기한다.

영零zero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절의 표기법들이다. 인도에는 기원전부터 영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만, 7세기에 이르러야 숫자로 이해되고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 아랍 국가들이 차용하고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

61 로마 숫자에서 100은 C, 10은 X, 5는 V, 1은 I. 307은 CCCVII(300: CCC, 7: VII).

인도에서 영零은 공공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산스크리트어로 शून्यता(śūnyatā, 순야타) 의미는 공공, 공됨, 비어 있음, 공성空性이다.

영의 개념에서는 ‘자리 비움’이 핵심이다. 인도에서 순야타 śūnyatā가 아랍으로 건너가 صفر(ṣifr, 시프르)로 표기되었다.

아랍에서 유럽으로 전달되면서 라틴어로 zephirum, 이탈리아에서 zefiro로 표기되면서 현재의 영을 뜻하는 영단어 Zero가 되었다.

아랍어 ṣifr(시프르)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零, 0)이나 아라비아 숫자, 암호를 뜻하는 단어 cipher(사이퍼)가 파생되었다.

무無nothing의 개념과는 ‘비어 있음, 없음’이라는 의미에서 통하는 것 같지만 차이는 분명하다. 무는 영어로 nothing(no+thing), 실재하는 물체/물건이 아닌 것. something에 대응하여 ‘무, 무가치, 비실재, 존재하지 않는 것, 유아가 아닌 것’을 설명하는 단어이다.

이에 반해 영은 실재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 돈 없어I have zero dollars’ 문자대로 해석하면, 달러가 지폐든 동전이든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I have nothing’, ‘I don’t have anything at all’이라 하면 nothing으로 인해 ‘가진 것이 전혀 없다’라는 존재적이고 질적이고 다소 철학적 없음을 의미하게 된다.

**‘상자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盒子裡什麼都沒有There is nothing in the box at all.’** 수량과는 관계가 없다. 실재實在 actual being가 없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다.

노장 사상의 무아와 무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통해 형성된 이해력이 있다 자평한다. 무아지경, 무위지위를 체화하여 사는 수행자가 있다고 상정해 보자. 이 자의 몸과 움직임 모두 무nothing都沒有인가? 있다. 분명히.

‘세상만사 세상만물 모든 것은 공썰이다. 나 자신의 자아도, 인위의 행위들 모두 무無. 실체가 아닌 공허하고 헛된 것들이다.’ 이러한 무아와 무위, 공성空性の 경지까지 이른 수행자라도 인간이라면 ‘있음有being’이고 ‘실체實體substance’일 수밖에 없다.

개념으로서의 무와 공은 깊고 넓고 고요하고 자유롭게 존재를 개척한다. 늘 깨어 수행하고, 읽어 알아 가고, 무언 묵상하면 무공無空은 그의 존재空性を 재창조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생명living being.

그러나 두 손을 펴 보자. 손가락 열 개가 있다. 참 신기하다. 다섯 개 다섯 개씩 한 쌍으로 거울 비추듯 모두 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쪽부터 1부터 10까지 손가락을 접으며 세어 보자. 숫자를 생각하면서.

1에서 9까지는 숫자 하나면 된다. 그러다가 열이든 십이든 마지막 손가락은 두 자리 숫자가 된다. 이때 영零 zero이 필요하다.

한자의 유래를 살펴보면 비가 보일락 말락 거의 비라 할 수 없을 정도지만 하여튼 하늘에서 뭔가 미세하게 떨어지는 물 입자들을 보면서 영霧이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Zero에 대해서는 처음에 살펴보았다. ‘자리 비움, 비어 있음, 公空’의 개념 언어에서 시작되어 숫자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영을 말할 때 자주 쓰는 또 다른 단어가 있다. ‘Naught(no+whit: 조금, 극소량, 입자)’. 한자 영과 어원적으로 통한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기에는 분명 극소하게 있고 그러나 하나라고 하기에는 온전한 1에 근접도 못 하는 수와 양, 상태가 영零과 노트naught인 것이다.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세 언어를 놓고 볼 때, 현재는 숫자 0을 영, zero, naught, cipher라고 부른다. 열 손가락 중 열 번째는 영이 있어야 한다. 1에다가 0을 합치기.

생식과 임신, 출산과 양육, 혈연과 사회, 학습과 훈련, 역할과 기능. 삶과 죽음. 나의 출생과 그 이후의 삶의 과정들 그리고 그 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 개별 존재의 하나의 명백한 이유나 유일한 근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나-있음有我I-Being’은 ‘나-없음無我I-Naught’이라는 우주 공간空間에서 공공간이다. 제로zero이다. 노트naught이다.

나라는 존재는 마치 전우주全宇宙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My being is like nothing in the box of the entire universe.

그러나 나의 존재 하나1에 티끌과 먼지 입자 같은 무아수無我數(나-없음-수) 영零을 붙이면 어떻게 바뀌어도 한1 자리였던 나의 존재가 두 숫자가 합쳐진 구성체가 된다.

멀티 유니버스multi-universe라는 상자에 ‘없는 것nothing’이 아니라, 그 없음과 공허와 비어 있음을 몸소 보고 접촉하고 있는 상자의 성분이 된다. 조금 더 밀고 나가 말하자면, 상자를 구성하는 입자particle<sup>62</sup>가 되었다는 것이다.

---

62 particle: 라틴어 particula. pars(부분, 조각, 미세한 것)+cula(작은 것을 뜻하는 접미사). 작은 부분.

자아와 마음, 감각과 형체, 행복과 편리만이 나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이들도 실체實體substance이고 존재存在living being이다. 아무것도 없고, 아닌 것 즉 무無nothing나 공空sūnyatā가 아니다. 다만 평생 다소 심각하게 제한, 제약되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일1 자리. 한1 자리. 아홉수가 최고 수. 해도 한1 자리.

‘다소 과하게a thought too much<sup>63</sup>’ 생각thought해야만 심령이 비워질 수 있다. ‘빈 채로’만 이렇게 변화된 생각을 하게 된다.

상자는 ‘빈 채로’. 나는 ‘나 채로’.

반면 욕망과 본성, 성정과 싫음liking, 육체와 감각, 감정과 정서를 제거한 상태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인간으로의 회복이고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 여기며 사는 이들도 있다.

괜찮다. 그러나 본인들 생각만큼 혹은 관여치 않는다 하는 자세만큼 실제로는 아름답고 고귀하지 않을 수가 많다. 중도 아니고 속환이<sup>64</sup>도 아닐 경우가 많을 것이다. 비존재non-

---

63 thought: [a ~; 부사적으로] 조금, 약간. 19세기 영문학에 자주 등장. [예] I was a thought too much in the way: 내가 약간 과하게 방해가 되었던 것 같아(in the way: 걸리적거린다, 방해가 되는 상태).

64 속환이俗還: 승려가 되었다가 다시 속인俗人으로 돌아온 사람.

being<sup>65</sup>의 영공領空<sup>66</sup>에 떠 있기 때문이다. 몸뚱이성性 없고 본성이 없는 비존재.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륙 상태 airborne로 공중空中 비행 물체로 간주된다. 1 mm 에 못 미치는 간격이라도.

평소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들뜬 상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중심을 세운 종교인이나 수행자라 해도 현실의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떠 있는 ‘무형체無形體no-body’라고 여기면 된다. 비존재로 존재하는 양식의 전형典型.

오늘 이 순간도 ‘빈 채로’ 있다. 일상에 자주 없는 만남도 있었고 대화도 했고 다른 이의 일터에도 가 보았고 물건들을 구입하기도 했다. 평소 루틴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몸뚱이의 일들, 성정에서 나온 나의 좋음liking을 구현하고자 타인과 나눈 말들, 농사용 기구들을 파는 곳에 가서 사 온 물품들. 내게는 영零이고 공空0이다. 내 몸 일1과 합쳐졌다. 상자는 ‘빈 채로’ 무수無數한 공空0. 난 ‘합체合體’로 10점 만점.

---

65 비존재非存在: 「철학」 유가 아닌 것. 또는 유에 대립하는 것.

66 영공領空: airspace. 「정치」 개별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

## 불꽃

생명은 기다림을 모른다. 생명은 회귀를 못 한다. 무지무능 無知無能. 여기까지였던 것에는 생명이 없다. 지금으로 다가올 것은 존재가 아니다. 무현부재 無現不在.

나의 생명은 ‘지금-여기-이렇게’로만 있다. 지금 나는 있는가? 있다면 무얼 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며 있는가? 어떠한 몸 상태로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는가? 무엇을 싫음하고 이를 구현하려 궁리하고 노력하는가? 무엇으로 인해 고요하고 무엇으로 인해 흥락興樂하고 있는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가 넘치게 향유하고 있는가?

숯불을 피울 때, 숯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주먹만한 참숯 덩어리를 피울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다. 불꽃이 타다닥 튈다.

반딧불이의 반짝임보다는 강렬하고 밝고 뜨겁다. 용접할 때 튀는 불꽃보다는 덜 밝고 덜 뜨겁다. 그리고 숯 점화통에서 튀어나올 때 보면 정말 작은 불티 팝콘이다. 몸에 직접 닿으면 따끔하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 주위에 노출된 채 있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내 사라진다. 그래서 늘 별일은 없다. 또렷이 보이는 하늘의 별처럼 너무도 특별한 모습과 움직임으로 튀어 올라 점과 선의 춤을 추다가 금세<sup>67</sup> 없어진다. 나에게 이 불뚱들은 ‘지금-여기’에만 있는 나의 생명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는 현상이다.

인간은 별뚱별처럼 삶 속 생활권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온갖 마찰과 저항을 받으며 축복이라 하든 저주라 하든 불꽃을 내며 살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 차갑게 식는다.

사람의 의도-의지-의식, 계측-계산-계획, 실천-실행-실력. 이들의 가치는 그 무게가 주먹만 한 차콜charcoal의 묵직함에 비견할 만하다. 그러나 타고 있는 숯이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

67 금세: ‘금시今時에’가 줄여든 말.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유성을 잠시 생각하지 말도록 하자.

나무는 불로 태워짐으로char 숯coal이 된다. 숯은 숯이 된 이상 숯으로 꺼져 재가 될 때까지는 불붙은 상태로 있을 것이다.

별뚥별은 우주 공간에서 있던 암석이나 물질이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유성流星이 된다. 땅에 떨어질 때까지는 공기와 마찰하며 그 압력에 눌리며 빛을 내고 있을 것이다.

불꽃을 포착해야 한다. 불뚥을 포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다. 불꽃처럼 작고 밝고 뜨겁고 울동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Spark(불꽃)는 ‘활기, 생기, 생명 발산, (재능 등의) 번득임’이다.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타다닥 소리가 날 때마다 튀어 날아오르는 불꽃. 그 꿈, 그 몽상, 그 상상, 그 설렘, 그 고요, 그 온도, 그 사랑, 그 평화.

인간은 숯, 별뚥별. ‘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어떤?’ 나는 말하지 못한다. 진실로. 그러나 안다. 진실로. 인간은 오직 한 번만 인간이다. 오직 한 생만 산다. 어느 정도 기한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말할 만한 말로, 설명할 만한 말로 말다하기에는 시간이 생각만큼 충분하지 않다. 죽음을 앞둔 이들 모두가 알고 있는 바, 잠시 잠깐이다.

불꽃처럼? 아니다. 불꽃을 살아야 한다. 불꽃은 무상無常한 인생 불길로부터의 비상飛翔이다. 非常. 지금 이 순간으로만 나타나는 사랑과 기쁨, 자유와 즐거움의 자신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열쇠이다. 금세 사라질 불꽃이 ‘지금-여기-이렇게’ 있는 생명이고 금세今世<sup>68</sup>이다.

---

68 금세今世: 현재의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세상.

## Vincerò

요즘은 구두쇠 혹은 수전노守錢奴라고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다 어렵다. 돈이 없다. 많이 없는지, 조금 없는지, 중간 정도로 없는지 알 길은 없다. 그런데 모두 돈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해 봐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전노라 하면 그 단어대로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조소하는 식의 표현이다. 영어로는 Miser(마이저).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Miserable과 같은 라틴어 어원에서 기원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좀 어리석기도 불쌍하기도 하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 복지 정책이 잘 정착되고 시행되는 나라는 선진국을 포함해서 그리 많지 않다.

복지 정책은 정책의 철학과 관리 기관이 기초이고 그 위로는 모두 국가 재정이다. 나랏돈은 언제나 완전 완벽하게 목적에 부합되어 사용되지 못한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시민 단체들의 감시가 있다.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 비용이 말썽이다.

개인 돈은 없다. 그래서 아낄 돈이 없다. 수전노가 나올 시대가 아니다. 나랏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전 시대, 직전 정부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구두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기업에 있는 개인, 정부 기관에 있는 개인, 금융 기관에 있는 개인, 시민 단체에 있는 개인으로는 어떠할까? 비리나 횡령 같은 경찰, 검찰 쪽 이야기가 아니다. 비리나 횡령을 한 범죄자 개인에 대한 관심이다.

많은 돈을 갈망해서 돈을 빼돌리는 것이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인을 수전노라고 했다. 결국 돈을 지키는 노예. 그러면 돈을 맘껏 사용하고 싶어서 많은 돈과 사랑에 빠지게 된 자는 무어라 불려야 할까?

범죄 영화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 보자. 치밀하고 오랜 준비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횡령했다. 주인공은 발각되지 않았고 크게 늘어난 자산을 가지고 사고 또 사고, 놀고 또 놀고 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몸과 마음의 기력을 잃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점점 몸과 마음의 상태가 곤궁困窮<sup>69</sup>해지는데도, 더 이상 생생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계속 돈을 쓰고 물건을 사고 놀러 가고 명품을 구매한다. 자기 낮이 나갈 때까지.

이제는 ‘돈 소유’와 ‘돈 사용’ 사이만을 오가는 시계추. 이런 자를 무어라 명명命名하면 적절할까?

### 수허노數虛奴consumisery<sup>70</sup>.

수전노가 희귀한 시대에 수허노는 군집하고 군중이 되고 군락을 이룬다. 가상공간에서든 광장에서든.

돈을 사랑해서 돈을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쓸 수 없는 이와 마찬가지로 수허노는 완전한 소유(consume의 라틴어 어원 ‘완전히 소유하다’)와 남만큼/남다른 소비consumption를 목적함에 소유되어 있고 소비되고 있다.

69 곤궁困窮: misery. 처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렵고 딱한 상태.

70 수허노數虛奴(글쓴이의 조어). 수數: 수량數量, 많은 돈, 끝없는 소비consumption · 허虛: 수량과 소비에 대한 집착만이 작동하는 기계적 인간의 비참한 상태misery · 노奴: 주체성을 잃은 존재의 상태.

자동화되었다. 기계화되었다. 비인간화되었다. 온갖 것들의 (사람도 포함해서) 소유자가 되었다. 온갖 것들의(가상의 것들까지 포함해서) 소비자가 되었다. 물품을 만들고 팔고 폐기하는 이들만큼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은 삼십<sup>71</sup>에 판매했다. 자기 영혼을 팔죽<sup>72</sup>과 바꿨다. 이들은 모두 ‘Vincerò’<sup>73</sup>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졌다. 패배다. 그래서 노예 된 채 산다. 수전노든 수허노든 돈에 졌다. 물질에 졌다. 물량에 졌다. 물품에 졌다. 자유와 감사의 마음으로 이들을 주체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상실했다.

---

71 성경에서 예수의 제자 가롯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기며 받은 돈의 액수. 은화 30개. 당시 노예 한 명 값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었다.

72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맏아들 에서가 사냥 후 배고픔을 못 이겨 쌍둥이 동생이 만든 붉은 죽(팥죽)과 장자권(첫째 아들의 권리)을 바꾼 일화. 눈앞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려는 영적 갈망과 집요하고 계산적인 성격의 야곱.

73 Vincerò: I will win!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Nessun dorma〉의 마지막 절정 부분.

그러나 ‘빈 채로’ 욕망하고, ‘싫음’하며, 이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이미 자신을 이긴 그이는 대체 어느 댜<sup>74</sup> 깊은 곳에 살고 있는가? 그 평생 사는 동안 ‘빈 채로’ 노래하며 춤추며 찬미하는 조르바식다Zorba-Siddha<sup>75</sup>의 감사와 자유와 사랑에 어떻게 감염될 수 있을까?

---

74 댜: ‘산山’의 옛말. 평안도 방언.

75 조르바식다(글쓴이의 조어): 오쇼의 ‘조르바 붓다’를 변형한 단어.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삶을 온몸으로 만끽, 규범보다는 본능과 자유를 열정적으로 좇는 자유인. 산스크리트어 Siddha: 깨달은 자, 균형과 조화의 존재.



체하는 채로 살 수는 없다.  
생명 있는 동안 인간은 욕망하고  
추구하고 노력해야 사람답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나다운 상태를  
웅숭깊이 품고 유지해야 한다.  
‘나인 채로’ 있기. ‘빈 채로’ 하기.

01 빈

09 숨다

02 채

10 말

03 빈 채로

11 석상 石像

04 전복 顛覆

12 수내면 水內面

05 도중 途中

13 영공 零空

06 와중 渦中

14 불꽃

07 기색 氣色

15 Vincerò

08 무순 無順

빈 채로